

중국CBDC공개로 생각해 본 힘의 분산의 필요성

이흥노

GIST EECS

Feb. 18th 2020.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는 세상이다. 통화도 마찬가지다. 이제 디지털 장부 속 숫자에 불과하다.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이 숫자를 맘대로 올린다. 달러 유통량을 늘린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숫자를 키워 빚을 갚고, TV,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등 생활용품을 수입하고 물건값을 지불하고, 14개 핵항공모함 군단을 운용하며 패권을 유지한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똑같이 숫자를 올려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맞지 않다. 소수 집단의 자의적 결정이 전 세계에 부작용을 만든다. 내재적 가치 없이 부풀려진 숫자는 개인의 건강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안된다. 저축을 빼앗기고 국가에 의존하게 만든다. 결국 어느 한 곳에 가서 쌓여 버블을 만든다. 지난 10여년 간은 부동산과 주식이었다. 앞으로는 어디가 될까? 새로운 금융 상품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까? 이런 세상에서는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한 없이 힘든 사회가 된다. 부의 양극화와 근로 가치가 하락 한다. 개인은 점점 가난해지고 빈곤층은 늘어난다. 우리 나라에서도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건물주가 하느님보다 높다” 는 웃기는 얘기가 나돌게 된다. 부를 가진 자가 후세 양육도 잘 하고, 법도 만들어, 사회를 지배한다. 이런 게 현실¹이라는 것이 여러 문헌과 논문에서 증명되어 왔다.

혹자는 이걸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자본가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잔뜩 사서, 똑똑하고 쓸모 있는 상품을 대량 공급해서 이런 세상이 온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다. 소수의 자본가가 부동산버블과 주식 버블의 주범은 아니었다고 본다. 주범은 가짜 돈 때문이다. 미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중앙 집권적 힘에 있다고 본다. 그들이 값어치 없이 발행하는 기축통화가 문제다. 그들은 통화량을 증가 시킬 때 다른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 내가 속한 나의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나는 영향을 받는다. 빈곤해 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저축을 빼앗긴다. 패권국의 주도적 독점 문제다. 통화의 남발이 만들어 내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본다. 누가 희생량이 되었을까? 산업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먹고 사는 민초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 근로자 비중이 높은 이머징 국가들이다.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Bitcoin은 통화 남발에 따른 부작용에 염증을 느낀 Satoshi가 일으킨 개혁이었다. 개인은 모두 PC를 갖고 있다. Satoshi는 한 개인을 대표하는 PC들을 묶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개인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PC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통용되는 화폐가 바로 Bitcoin이다. Bitcoin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는 참여자들 자신이다. 만성적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빚을

¹ Thomas Piketty, *Capital and Ideolog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2020.

언어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 혹은 정부가 없다. 전 세계에 30억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도 없다. 탈 중앙화 네트워크 건설의 가능성은 Bitcoin이 이룬 위대한 업적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CBDC는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라는 이름으로 추진 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CBDC를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한다. Facebook Libra가 추진되자, 더욱 박차를 가해 금년에 초기 버전을 발표하고 시범 운행 하기에 이르렀다. Bitcoin은 민초가 반발하여 만든 세계인의 화폐 라고 한다면, DCEP는 중국이 통화패권국에 반발하여 추진하는 화폐 라고 본다. DCEP는 그러나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법화다. 탈 중앙화가 필요 없다. 화폐에 대한 신뢰는 중국공산당에서 나온다. 그래서 블록체인 사용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된다.

DCEP는 디지털통화다. 편리하다.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지급결제 가능하다. 국가가 지원해주는 금융 지원도 쉽게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래머블 해서 사용처 제한, 장소 제한, 사용 시한 제한을 거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CBDC라는 새로운 법화에서 아쉬움을 느낀다. 탈 중앙성이라는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대신, 정부가 개인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개인의 생산 및 소비 활동을 들여다 보고 세금도 보다 더 정확하게 메기고, 필요하면 재난 지원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필요에 따라 보다 더 정부를 강력하게 만들어 감시와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 한 국가의 정부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결국 우리 중 한 무리의 집단이 선출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힘을 소수의 무리에게 주었는데, 이 무리가 주인을 몰라보고, 소중하게 가꾸온 시스템을 단시일 내에 망가뜨려 버리면 어찌할 것인가?

힘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안된다. 강력한 국가 아래에서 개인은 가난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재지변, 코비드19, 허리케인 등으로부터 재난을 맞이한 나약한 시민이다. 돌봄의 대상으로 전략한다. 투기, 뇌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언제든지 부정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다. 믿지 못할 존재며 감시와 감찰의 대상이다.

개인의 빈곤이 힘의 과도한 집중에서 왔다고 진단한다면 현재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CBDC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게 사실이다. 디지털커런시는 오히려 중앙은행의 발권력 독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후퇴시킨다. 개인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 Bitcoin에는 자유가 있다. 국가를 벗어나 세계의 시민이 된다. 자유롭게 거래하는 글로벌 시민이 있다. 프로토콜이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더 좋은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진화 할 수 있다.

Bitcoin도 진화가 필요하다. 블록 생성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이론을 활용하여 블록 생성 권한을 다시 탈중앙화 하는 새로운 프로토콜²을 개발하여 공개하였다. 또한 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ABCD Inclusive Finance³라는 개인이 연대 와 협력하는 세계적 네트워크의 건설을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송도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글로벌세션에서 제시한 바 있다.

² 연구실 및 LiberVance(주) 홈페이지 참조, https://infonet.gist.ac.kr/?page_id=8411.

³ 연구실 Publication페이지 ABCD IF 논문 참조, https://infonet.gist.ac.kr/?page_id=14.